

2000년 사료산업 결산 및 2001년 전망

김치영 부장
한국사료협회

지난 1998년 IMF 관리체제하에 큰폭으로 감소하였던 배합사료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5.0%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금년도의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 파동과 급작스런 경기 위축으로 인해 회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사료업계에서는 금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같은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IMF 직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은 연초까지만 해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4% 이상 증가하면서 어느정도 적응하는 듯이 보였으나, 3월이후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소입식이 크게 줄면서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를 둔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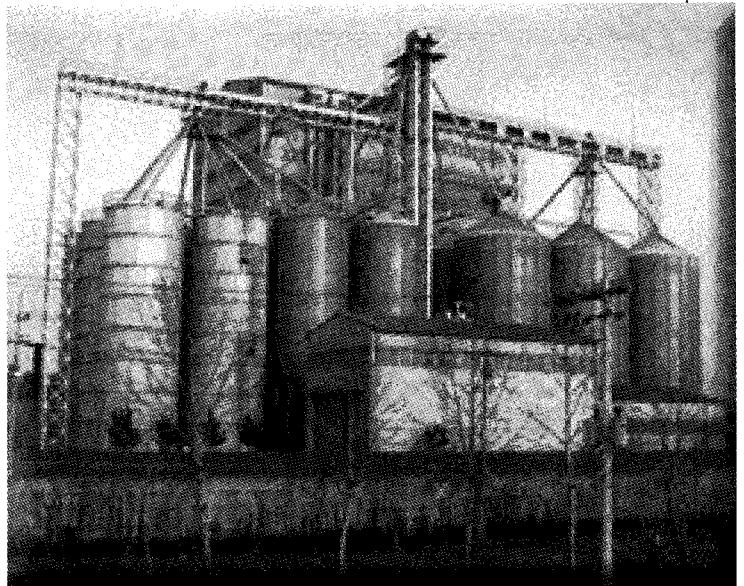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12,351천톤으로 지난해의 12,166천톤에 비해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대가축인 비육우사료의 생산량은 10% 가까운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비육우 사료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01년부터 자유화되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양축농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가축 사료에 특화되어 있는 농협의 생산 감소폭이 일반사료 회사보다 높았다.

또한 양계와 낙농사료는 전년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고, 양돈사료의 경우는 7.9%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중단으로 인해 돼지고기의 수출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양돈불황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금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10월 말 현재 1.5% 증가하면서 아직도 증가세는 유



〈표〉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양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계
1980	1,805	704	393	104	-	3,006
1985	2,310	1,924	994	1,209	21	6,457
1990	2,923	3,551	1,790	1,667	144	10,426
1995	3,766	4,725	2,095	3,681	428	14,695
1996	3,849	4,994	2,168	4,137	635	15,783
1997	3,763	5,062	2,087	4,366	572	15,850
1998	3,423	4,918	1,888	3,605	374	14,153
1999	3,846	4,872	1,916	3,739	483	14,856
1999.10 (A)	3,176	3,945	1,574	3,080	389	12,166
2000.10 (B)	3,217	4,255	1,574	2,798	505	12,351
전년동기 대비(B/A)	101.3	107.9	99.9	90.9	129.7	101.5

지되고 있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와 축산물 가격 하락등이 예견되면서 배합사료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대략 전년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튼 금년도의 배합사료 산업을 결산해볼 때 구제역이라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와 축산업계의 조기 수습노력에 따른 결실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구제역에 따른 여파는 우리 축산

업계에 수출돈육의 재고누증이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퇴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한 축산물 소비마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축산경기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으로 예고되어 있는 쇠고기 수입의 전면자유화가 물고을 파장이 우리 축산업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배합사료 생산량은 현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